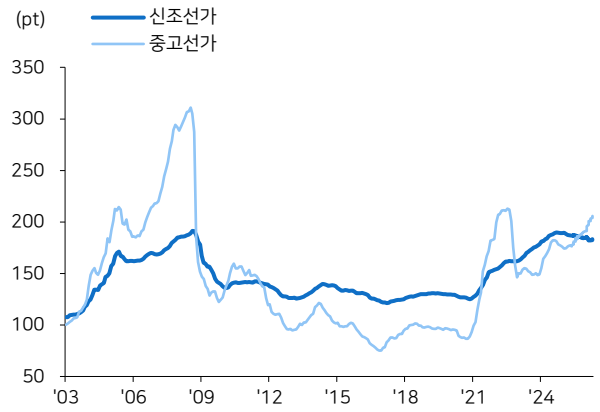
2026. 4. 21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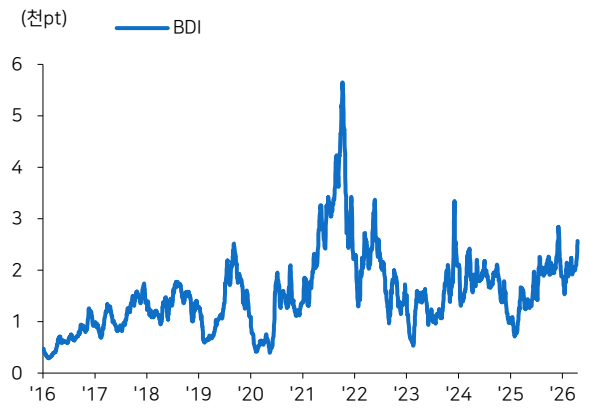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3.6p (+0.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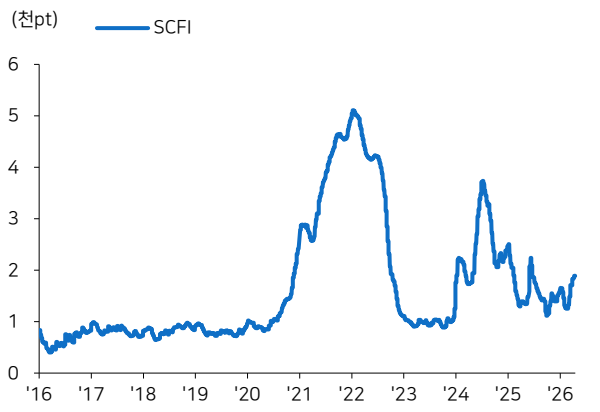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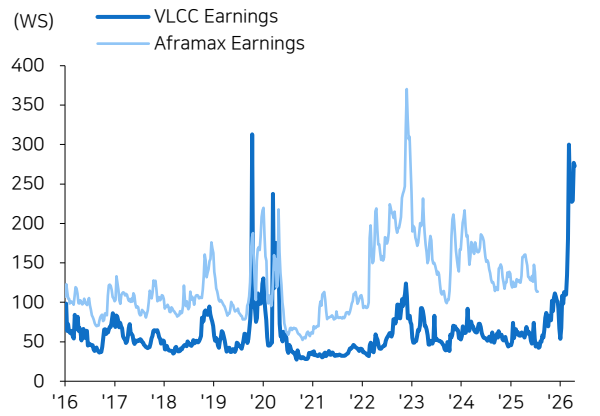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67.0p (+4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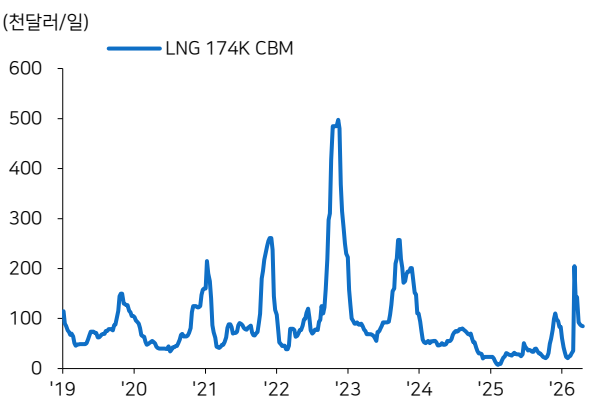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86.5(-4.2 WoW)



VLCC Spot Rate 272.9WS (-4.0p WoW)



LNG Spot 운임 84.5천달러 (-1.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8천억 태국 군함 수주전...HD 현대·한화 격돌 (매일경제) https://zrr.kr/hjzWaZ

태국 왕립해군이 추진하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4,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 제안서 접수가 21일 마감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참여하는 글로벌 수주전이 본격화된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단순 함정 수출을 넘어 최소 20%의 현지 건조와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방산 사업으로, 향후 추가 도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최대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사업을 통해 입증한 동남아 시장 내 운용 신뢰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 기함을 건조한 기존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짐.

조선·철강·전기차·에너지 '맞손'...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재계 총출동 (머니투데이) https://zrr.kr/KMvUZf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 기업 간 20개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된다고 보도됨. HD한국조선해양은 인도 신규 조선소 구축을 위한 중앙 · 지방정부 지원사항 및 JV 지분구조 추진방향을 명문화하는 한편 인도 마드라스 공과대학과 스마트 조선소를 위한 AI 기반 제조 기술 개발 협력을 한다고 전해짐.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이날 현지에서 열리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포럼은 8년 만에 우리 정상의 인도 국빈 방문 계기로 개최된 대규모 경제 행사로 알려짐.

美서 귀한 몸 한화 필리조선소, 신속 행정 1호 선정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ThgJe3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대형 투자 전용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인 'PHL 프라임'의 제1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그램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필라델피아시는 한화가 추진 중인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7,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 평가해 이례적으로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해짐. 이번 선정을 통해 한화는 현지 생산 능력을 연간 최대 20척 규모로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단순 외투기업을 넘어 미국 조선업 재건과 산업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알려짐.

한화, 美 해양솔루션 조직 신설...에너지물류 사업 확장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LebRPd

한화가 미국에 '한화해양솔루션(Hanwha Maritime Solutions)' 조직을 신설하고, 선박의 설계 · 건조부터 운용, 에너지 공급, 유지 · 보수 · 정비(MRO)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2E)'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도됨. 이번 조직 신설은 기존의 선박 납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 에너지 물류와 선박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해양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며, ExxonMobil 출신의 제임스 세이거 한화쉬핑 CEO가 수장을 맡는다고 전해짐. 한화는 이를 통해 한화쉬핑,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미국법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 내 해양 사업 밸류체인 전반을 장악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칠레 잠수함 수주전 공세 시작...현지 네트워크 확대 '첫발' (더구루) https://zrr.kr/AsuySt

한화오션이 칠레에서 유일하게 조선공학과를 운영하는 Austral Universit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고 보도됨. 이번 협력은 칠레 해군 근무 인력의 대다수를 배출하는 핵심 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형 잠수함 도입 등 칠레 해군의 중장기 현대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전해짐. 한화오션은 최근 'FIDAE 2026' 전시회 참여와 중남미 군 관계자 초청 행사 등을 통해 자사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적극 홍보해왔으며, 이번 MOU를 발판 삼아 남미 시장에 최적화된 함정 플랫폼 공급과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First ammonia dual-fuel engine for Eastern Pacific VLAC passes key test (TradeWinds) https://zrr.kr/QIOp1v

엔진 설계사 Everllence의 첫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이 공장 수락 테스트(FAT)를 통과하여, 싱가포르 선사 Eastern Pacific Shipping이 발주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에 탑재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됨. 해당 엔진은 한국의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에서 제작되었으며, 2026년 10월부터 인도가 시작된다고 전해짐. 이번 테스트 성공은 탄소 제로 추진 기술의 상업적 데뷔를 앞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며, 앞서 WinGD 엔진을 탑재한 Exmar의 암모니아 추진선과 함께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